



# 폐쇄적 연구원 선발 절차 파고든 '비리'

### 사업 따낸 교수, 선발 과정서 절대적 권한 '을' 관계인 학생들 부당한 요구 거절 못해 '공개모집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목소리도

속보=대학 교수가 '유명연구원'을 동원해 연구비 또는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건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 대학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어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연구원 선발 절차와 대학 연구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리 특성이 결합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유명 연구원에 동원된 학생들=통상 대학 연구원은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대학 부속시설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와 연구 수행 보조자를 통칭해 일컫는다.

국가 연구과제 혹은 지자체 보조 사업을 따낸 교수, 이른바 연구책임자들은 해당 사업을 혼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원들을 참여시킨다. 학위 등 자격 요건만 맞으면 연구과제·보조사업을 따낸 교수와 이해관계에 얽혀있어도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 연구원이 교수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리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대학원생과 학부생도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통상 학내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에서 적발된 '유명 연구원' 대다수가 바로 이런 학생 연구원이었다.

이번에 고발된 제주대학교 A교수도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챘다. 감사결과 A교수는 제주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산업접수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 대학원을 다니던 제자 등 총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44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갑을 관계에서 '을'인 제자들은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모제 대안 뭉개=연구원 선발 과정에서는 사업을 따낸 담당 교수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

한 규정'과 '취업규칙'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기 계약직 연구원은 부속시설의 장 등이 추천해 총장 또는 단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속시설의 장 등'에 연구사업을 따낸 담당 교수가 포함된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연구 과제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이해가 높은 이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연구 실적을 낼 수 있고 구성원 간 팀워크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이유로 연구원 선발 권한이 연구 책임을 맡은 교수에게 사실상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선발 방식이 비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선발 대상이 교수의 지도를 받는 학생일 경우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인건비 횡령 의혹을 받는 A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 중 명의를 빌려줄만한 이들을 미리 골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공개 모집이 이런 폐단을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수가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별해 선발하는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학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구원 참여 기회를 주는 등 보다 공개된 방식을 택하면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은 학생 연구원을 공모로 선발하고 있었다. 이달 초 게시된 선발 공고에는 연구 과제명, 진행 방식·기간, 급여 등이 명시돼 있다.

대학 개혁 과제를 발굴해 온 대학교육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은 "교수가 암암리에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식은 그동안 가장 흔하게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들"이라며 "재정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연구원 공개모집을 의무화해 제도화하는 것도 이런 유형의 비리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내 비리가 만연할 때마다 각종 규제가 뒤따랐는데 이는 결국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 내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대는 A교수의 비위 행위를 계기로 내년부터 교수가 따낸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산학협력단은 학생 연구원을 상대로 연구비 부당 집행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2022년 끝자락, 제주 겨울바다 27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운치있는 제주 겨울바다를 즐기고 있다. 이상민기자

## 음식점 대표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안한다 신상공개심의위 "현재 계속 수사중인 사안 고려"

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과제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비록 법률적 권리 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씨와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죄가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언론인·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쯤 제주시 오라동 한 주택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집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가 모두 강도 살인으로 바뀐 예정이다.

또 김씨의 아내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박씨는 김씨에게 현금과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 강정주민 29명 또 '특별사면' 제외

### 정부 "형이 모두 실효돼 사면복권 대상자 없다 판단" 오 지사 "주민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노력할 것"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대상 당시 공약이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공직자 등 137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앞서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신년 특사에도 강정주민들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면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며 사면복권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강정마을 주민의 염원과 건의를 받아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민권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온**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건로 껍질 두꺼운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만개)**  
하늘, 팔삭, 세이불,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로,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년 02-01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 약 1000원, 선김, 주문생산, 선봉미, 미니로,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모형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물가안정 사은행사**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중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KTBA 해외보청기 대상 수상 3회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국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가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